

# 전북교육청 “고3 진로진학 지원”

### 6월중 입시설명회 4차례 열려... 행사장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과 진로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6월중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오는 8일 고등학교 2학년 입시설명회가 전주대학교 II아트홀에서 열린다. 고2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전형과 수능의 변화를 짚어 보고 진로탐색 방안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또 13일에는 EBS와 연계한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북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학습전략 설명회에서는

2021 대입전형 대비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과목별 학습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등교 수업 이후 학교 활동의 방향성과 내용, 코로나19 이후 효율적인 대입 준비 방법, 수시·정시 지원별 특징, 대학별 학생 선발 기준과 평가 중점 영역 등이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사관학교 및 전북권 대학 입시설명회가 전북교육문화관에서 이어진다. 2020학년도 입시결과분석 및 2021학년도 대입전형과 지원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는 고려대·연세대 입시설명회가 전북교육문화관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은 서울지역 주요대학 입학사정관과 도내 진학담당 교사들 간의 간담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서울대·19일 고려대·20일 연세대 순으로 진행되며, 각 대학별 입학전형과 특이사항 등을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입시설명회가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소독, 좌석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설명회 전 방역압제를 통해 좌석, 무대 등 강연장 전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등을 이용해 참석자들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체크한다.

행사 운영 관계자와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가 확보 되도록 좌석을 배치하며,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한 칸씩 비워 앉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학 정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과 진로 탐색 방법 안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곽영호 교수)은 4일 LINC+ 콘텐츠 크리에이터(17)와 산학협력 학생 서포터즈(47)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 전북대 LINC+사업단, 산학협력 학생서포터즈 발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곽영호 교수)은 4일 LINC+ 콘텐츠 크리에이터(17)와 산학협력 학생 서포터즈(47)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학생 서포터즈는 학생 중심의 산학협력 확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족회사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총 30명의 47기 서포터즈들은 3D모델링지원단, 디자인개발지원단, 마케팅지원단의 3개 분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앞선 1~3기 학생 서포터즈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산업체(가족회사)의 요구를 반영한 3D모델링 설계 22건을 비롯해 C 2건, B 3건, 카탈로그 5건, 포장박스 5건, 제품패키징 6건 등을 제작했고, 기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업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47기 서포터즈 학생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첫걸음을 뗀 콘텐츠 크리에이터(7명)는 공대를 비롯한 인문사회/예술분야(LINC+ 비참여학과 포함)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발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 운영 기자단 활동 등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로, 사업단 홍보를 위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LINC+사업단 ‘덕분에 챌린지’ 동참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승)은 코로나19 치료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한 뒤, ‘#덕분에챌린지’,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020년 혁신지원사업(1유형) 연차평가에서 도내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 전북교육연수원, 공모결과 발표

전북교육연수원(원장 김학산)이 연수 주제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전북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참신한 교육 훈련 주제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결과 22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북교육정책과의 연관성·실현 가능성·효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김00 주무관(도교육청 총무과)의 ‘통합적 사고를 통한 직급별 필수 역량 증진 프로젝트’, 우수상은 김00(전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의 ‘지방공무원 업무 주기별 연수’와 임00(가천초) 주무관의 ‘일반직공무원들을 위한 각급학교 교육과정 연수’가 각각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혁신지원사업 ‘A등급’

### 도내 전문대학 중 유일 쾌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020년 혁신지원사업(1유형) 연차평가에서 도내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국 87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평가결과는 3개 등급(A/B/C)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전주비전대는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대학혁신을 겸인하는 전국 최고의 사업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전주비전대

혁신지원사업단은 2차년도 사업운영을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업비(국고) 약 4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주비전대는 ▲대학의 성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VISION역량 학생성공인증제 실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해외취업의 비전을 제시한 외국인 재학생 ‘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서 차별화를 보여줬다. 특히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S 정책’은 기존의 현장머러형 실습실과 강의실, 친환경 중심의 에

너지절감 및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학습공간으로 개선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홍순직 총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취업을 강화 지원을 통해 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지난 1차년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 및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담비 ‘자연의 품’으로

### 교통사고 치료 한달 만에 구조한 곳에서 방사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II급인 담비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센터는 3일 오후 4시 진안군 안천면에서 한재익 센터장을 비롯해 치료를 담당한 수의사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담비를 방사했다. 이곳은 담비가 구조된 곳이다.

이 담비는 지난 5월 3일 진안군 안천면 신과리 도로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신속히 구조해 꾸준히 치료했다.

구조 당시 담비는 2차선 도로가에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상태는 둔감했고, 머리굴림 증상을 보여 두부외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곧바로 센터로 이동해 약물처방과 함께 꾸준한 재활훈련이 진행됐다. 한 달 가량의 극진한 관리와 치료 덕에 빠르게 회복해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한재익 센터장은 “사고 당시 담



비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오랜 치료 끝에 야생동물을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방사 행사를 통해 자연 보호의 가치를 알리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 2009년에 문을 열고 독수리나 수리부엉이, 말뚝가리 등 멸종 위기종이나 한국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전북대 수의대 연구진들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